

대안적 농식품체계로써 신토불이 운동의 재해석*

A Study on the Reinterpreting of Shintoburi Movement as Alternative Agri-food System

현의송** · 임형백***

Eui Song Hyun · Hyung Baek Lim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alternative agri-food system among Korea, Japan, USA and Italy. This study explore the situation and its challenge of alternative agri-food system. Alternative agri-food system is movement against global agri-food system and food multinationalization. Four alternative agri-food system not only have something in common but also have something in difference. We tried to make clear the commons and differences. But many these ideas were useful in someways, but none could be used to explain everything. This study was the touchstone of Korea's alternative agri-food system. We introduced simplistic ideas and compared four alternative agri-food system. This study sparking renewed discussion about Korea's alternative agri-food system, namely, 'The domestic farm products are the best movement'.

주요어(Key words) : 신토불이(Shintoburi), 농식품체계(agri-food system), 로컬 푸드(local food), 슬로 푸드(slow food)

* 이 논문은 2009년도 (사)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에 대하여 유익한 코멘트를 하여 주신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 회장. e-mail: eshyun21@naver.com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교신저자. e-mail: emperor10131@hotmail.com

1. 서론

이 논문은 한국의 신도불이를 대안적 농식품체계로 보고 이를 재해석 하는데 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한 일본의 지산지소, 미국의 로컬푸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슬로푸드를 비교·연구를 통하여 신도불이의 한계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1980년대 이후 식품 및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지구적 규모의 자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는데, 농식품체계(agrifood system)의 집중과 다국적화(multinationalization)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Reardon et al., 1999). 세계적 농식품체제(global agrifood regime)는 곡물, 육류, 가공식품이라는 세 개 영역의 농식품복합체(agrifood complex)가 농업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까지를 묶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Friedland, 1991).

농업의 세계화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등이 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 또는 세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 발전과 생산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역농업의 붕괴, 농업의 다양성 약화, 환경과 경관 파괴, 제3세계 농민의 궁핍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종덕, 2002b).

현재의 농식품체계(agri-food system)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농장에서 입까지(from land to mouth)' 또는 '종자에서 식탁까지(from seed to table)'이르는 과정에 개재하는 자본들의 영역확대가 지역 및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면서 먹거리의 안전성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농촌공동체의 유지 등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Yoon, 2006).

위기의 징후는 농장과 농민수의 감소, 농촌경제의 빈곤화와 소도시의

몰락,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food dollar)의 감소, 토양침식, 수질오염, 생물종다양성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Henderson, 2006).

폴란드는 EU에 흡수됨에 따라 전체 농민의 70%인 140만 농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 필리핀에서는 1999년 7월에서 2000년 7월 사이에 농업 노동자 중 120만 명-한 해에 10%가 감소하는 정도-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먹거리를 수입함에 따라, 향후 5년마다 약 200만 명의 농민이 농업을 그만둘 것으로 추정했다(여기에는 물 부족, 중국 북부 사막의 확대, 농작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농촌을 떠나는 농민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혁명 당시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미국에서 현재 전업농의 수(인구의 1%도 안된다)는 교도소의 수감자의 수보다도 적다(Halweil, 2006).

2003년 하와이 농업회의에서 켄 미터(Ken Meter)는 20만 헥타르의 기름진 농경지를 놀리고 있는 하와이 열도가 현재 먹거리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 정부는 휴경 비율이 85%라고 추정한다(Halweil, 2006: 65). 농업이 세계화되면서 먹거리의 생산과정과 소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방음식의 문화적 차원이 실종되었다(Montanari, 2001).

특히 식품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데,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전제로 한 농식품체계(agro-food system)가 먹거리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이다.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세계화된 농업의 특징상 지역농업은 경쟁력에서 밀려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범위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입 식재료가 대규모로 유통되는데, 이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인체에 위해한 화학첨가제가 많이 살포될 수밖에 없다(IFG, 2003).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었다. 카우츠키(Kautsky, 1899)는 『The Agrarian Question』에서 가족농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서도 농업투입제에서 식품생산까지 포함하는 농기업(agribusiness complex)에 흡수되어 가는 과정을 다루었다. 또 레닌(Lenin, 1899)도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에서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독특한 성격을 다루면서 농민의 생존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임형백 & 이성우, 2004).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농식품체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입장이 명확히 제시된 연구는 없다. 다만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농업사회학(Sociology of Agriculture)분야에서 일군의 학자들(Friedmann, 1982; Friedland, 1984, Massey, 1984; Sanderson, 1986; Goodman et al., 1987; Swanson, 1988)에 의하여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모든 지역이 모든 먹거리를 다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얼마간의 먹거리 무역은 자연스럽고 이롭다. 또 먹거리의 완전한 자급이라는 이상은 부국과 빈국 모두에게 똑같이 비현실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자급률의 향상은 번덕스러운 국제시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완충장치라 될 수 있다(Halweil, 2006).

한국의 신토불이, 일본의 지산지소,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미국의 로컬푸드 운동은 이러한 세계농식품체계에 대한 대안운동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작게는 안전한 먹거리에서부터 크게는 경제, 국가, 그리고 지구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신토불이는 ‘인간의 생존원리 차원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인간의 바람직한 식생활 원리를 설명’ 하는 것이다. 그 연원이 가까운 조선시대의 의서인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東醫寶鑑)』이며, 멀리는 불교사상까지 닿아 있다. 그럼에도 농산물의 시장개방 상황하에서 계몽적·시민운동적 차원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농촌경제활성화와의 연계가 미약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의 ‘신토불이’를 하나의 자생적 대안적 농식품체

계로 보고, 이를 재해석하는데 있다. 동시에 일본의 지산지소, 미국의 로컬푸드, 이탈리아의 슬로푸드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도불이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신도불이,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론적 체계화 보다는 신도불이에 대한 재조명과 나아가, 신도불이를 먹거리 안정,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생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으로 재정립·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신도불이의 개념

신도불이(身土不二)는 '사람의 육체와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의 토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한국인의 체질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맞다'는 말이다.

신도불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의 불이사상(不二思想)에서 나온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것이다. 불법에서는 서로 고유한 두 존재이면서도 이들의 존재 근원이 하나인 사실을 두고 '이이불이(二而不二)', 즉 둘이면서 결코 둘이 아닌 하나로 표현한다. 이를 '불이(不二)'로 줄여 만든 말이 바로 불이사상이다. 신도불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불이사상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을 연구한 한국학의 대가 이을호(李乙浩)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간조선, 2006.10.17).

어원은 조선시대 의서(醫書)인 『향약집성방』 서문의 '기후풍토와 생활 풍습은 같다'는 표현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사람의 살은 땅의 흙과 같다'는 표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중국 원(元)나라 때 보도(普度)법사가 펴낸 『노산연종보감(盧山連宗寶鑑)』의 '신도불이(身土不二)'라는 계송(偈頌)에는 '몸과 흙은 본래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身土本來無二相)'라는 말이 있다. '사람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나는 채소를 즐

겨 먹어야 한다’는 석가(釋迦)의 가르침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1989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을 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한호선(韓灝鮮) 당시 농협중앙회장이 이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면서 일반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신도불이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좁은 의미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한국적인 모든 것, 즉 문화·전통·관습 등을 총괄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농촌과 도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농도불이(農都不二)’라는 개념도 만들어내었다.

3. 신도불이 운동의 전개 과정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농산물시장은 경제 여건과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GATT에서 인정하는 수입제한 조치에 의해 보호되었다. 그러나 이후 담배와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미국 등으로부터 개방 압력이 서서히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 1986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자 이를 배경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었다. 1988년에 개최된 한·미통상협상에서 1988년에서 1991년까지 3개년간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면서, 243개 농산물수입이 개방되었다(임형백 & 조중구, 2004).

한국정부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정보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준비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수입개방이란 상황에 처음 직면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다수의 국민 정서도 농산물시장개방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소비자와 시민들 사이에 고조되자 농협은 전 국민을 상대로 신토불이 운동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1991년에는 전체 국민의 31%인 1300여 만 명이 42일 만에 쌀 수입개방 반대 서명을 완료했다. 1993년 12월 9일에는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쌀의 최소시장 접근방식의 쌀 수입개방이 발표되었다.

초기에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은 수입개방 반대 운동과 함께 수입 농산물 불매 운동도 전개했으나, 결국 농산물시장개방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GATT와 WTO 체제하에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참가국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한국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시장개방 요구를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고 그보다 부가가치가 큰 공산품을 수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중국으로 삼성의 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하여 중국산마늘을 수입한 예이다.

<표 1> GATT와 WTO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구분	협상명	시기(연)	참가국수	주요의제
제1차	제네바라운드	1947	23	관세인하
제2차	아네시라운드	1949	29	관세인하
제3차	토케이라운드	1950-1951	32	관세인하
제4차	제네바라운드	1955-1956	33	관세인하
제5차	딜론라운드	1960-1961	39	관세인하
제6차	케네디라운드	1963-1967	74	관세인하, 반덤핑·관세평가협정 등

제7차	도쿄라운드	1973-1979	99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완화 등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	1986-1994	117	관세인하, 농업·섬유·서비스 무역자유화 확대, 지적재산권보호 등
제9차	도하라운드*	2001-	150	관세인하, 농업보조금삭감 등

자료: www.wto.org.

이후, 1989년 농정 운동의 방향을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으로 전환하며 신토불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즉 “우리 체질에는 우리 땅에서 생산된 식품이 가장 좋다”는 뜻을 신토불이로 표현한 것이 소비자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농협은 국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수입 농산물을 이겨내는 장기적인 방책이며,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생산자 단체의 소임이라는 관점에서 우수 농산물 생산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더라도 소비자가 국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산 농산물을 선택한다면 수입개방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 국민건강을 위해 신토불이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신토불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전개된 농협의 국산 농산물 애용 운동은 1989년 8월 11일의 ‘국산 농산물 애용 캠페인 전진대회’를 시발로 전국 각지의 가두 캠페인과 전국 농협 임직원의 모금운동으로 이어졌다. 농협은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MBC-TV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으로는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무분별한 식품 수입의 유해 여부를 조사·고발하여 국산 농산물 애용 운동을 뒷받침했다. 이밖에도 농협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국산 농산물 애용을 주제로

한 전국 어린이 신토불이 글짓기 대회, 전국 주부 신토불이 글짓기 대회, 전국 대학생 신토불이 논문 현상공모를 계속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신토불이 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거부감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토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국산 농산물 애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적인 것은 물론 전통적인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으로 신토불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을호(1993)는 “신토불이란 곧 살아있는 대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일깨워주는 생존법칙이다. 동시에 신토불이의 섭리는 운동이나 부르짖음이 아니고 실천이고 생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환경사상과 생명사상으로 까지 개념을 확대하였다. 이후 신토불이라는 용어는 국민들로 하여금 농산물 개방 문제를 넘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의 좀 더 근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협은 신토불이를 상표등록한 뒤 모든 농협의 농산물에 수입 농산물과 구분하기 위한 신토불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농협은 도시지역에 있는 500여 개 금융점포에 '신토불이'라는 미니 점포를 개설하고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 직매장으로 활용했다. 이후 신토불이는 농협의 이미지가 되었고, 일부에서는 농협 점포에서의 외국산 농산물의 취급이 소비자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연결되기까지 하였다. 2008년 12월 현재 농협의 금융창구에 있는 신토불이 직매장은 509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2008년에 1407억원의 국산 농산물이 판매되었다.

4. 신도불이의 한계

4.1. 자생적 지지기반의 미약

신도불이의 출발자체가 국민대중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1989년 UR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농산물시장개방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농협에 의하여 주도된 측면이 강하였다. 국민 대다수의 자생적 지지기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농협이라는 기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다보니 농산물시장개방이라는 상황하에서 국민의 애국심과 정서에 호소하는 면이 강하였던 신도불이 운동은 출발부터 하향식의 계몽적인 측면과 시민운동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단기간에 신도불이 운동을 널리 알리는데는 성공한 반면 자생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이후 농산물시장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면서 농협에서 신도불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4.2. 농촌경제활성화와의 연계 실패

농협이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뒤따른 반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소득제고 효과와 농촌경제활성화의 효과는 적었다. 또 농산물시장개방이 거스를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됨에 따라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고 값싼 수입농산물의 소비가 진행되었다.

현재 농협은 전국에 '하나로마트' 점포를 13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내 농산물의 취급 비중은 5~10%에 불과하다. 신도불이 운동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균등한 품질을 가진 지역 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협의 관심과 노력부족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농협의 중요 기능인 영농지도를 통해 지역 내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공급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제고와 농촌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킴으로써 신도불이를 농민 스스로가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국민1인당 푸드마일리지는 일본보다는 낮지만, 기타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그만큼 해외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장거리를 수송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총 푸드마일리지는 317,169백만 t·km이며, 이 중에서 품목면에서는 옥수수 등의 곡물이 55.1%, 대두 등의 유량종자가 12.5%, 그리고 대두박이 11.7%를 차지하고 있고, 대상국가면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드는 푸드마일리지가 전체의 43.7%, 브라질이 15.9%,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각국의 국민1인당 푸드마일리지 (2001년)

나라	푸드마일리지(t·km)
한국	6,637
일본	7,093
미국	1,051
영국	3,195
프랑스	1,798
독일	2,090

주: 수입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송거리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수도간 직선거리로 대체.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물론 세계화 시대에 신도불이의 폐쇄적이고 상업적인 성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또 농산물시장 개방에 직면하여 국산농산물의 소비

를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이후, 아직도 신토불이는 개념의 혼란이 있고 무엇보다 이론적 체계화가 부족하고 농촌경제활성화 효과가 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산물시장개방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농협이 주도하였을때 농민들도 이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토불이 운동이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자들이 외국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값싼 외국농산물을 찾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이제 는 외국농산물 없이는 국내농산물 수요를 맞출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줄어들고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4.3. 이론적 체계화의 부족과 학계와의 괴리

신토불이 운동은 출발부터 농산물시장개방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농협에 의하여 주도된 관주도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였다. 신토불이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공감하지만, 이때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깊은 고민과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농산물시장개방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농업의 생존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첨단 기술농업, 구조조정, 규모화 등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농업분야의 생존에 연구역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농산물애용운동의 성격을 가진 신토불이 운동은 연구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고, 접근방법도 생소하였다.

더구나 이후 일군의 학자들에 의하여 신토불이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활성화된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 운동이 소개되면서, 일본의 지산지소와 서구의 로컬푸드와 슬로푸드 운동이 신토불이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5. 신토불이와 유사한 대안적 농식품체계

5.1. 일본의 지산지소

‘지산지소(地產地消)’는 “지역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먹자”는 운동이다. 즉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이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지만, 지산지소 운동에서는 일본의 광역 행정단위인 도·도·부·현을 자기지역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류인 것 같다(코노 다이스케, 2006).

지산지소라는 단어는 1981년 농림수산성 생활개선과가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한 ‘지역 내 식생활 향상 대책 사업’에서 탄생하였다. 그 후 1984년 잡지 『식의 과학』에 아키다(秋田)현의 직원이 발표한 글에서 지산지소를 처음 사용했고, 당시 생활개선 활동을 소개한 농림수산성의 홍보지에도 지산지소라는 단어가 실려 있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을 줄이기 위해서 염분을 줄이고 미네랄·단백질 등이 균형을 이룬 식품 섭취가 급선무였다. 1990년 72.3%이던 여성취업비중은 2000년 81.4%로 증가하였고, 2000년 6.5%인 65세 이상의 단독세대는 2020년에는 1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2003년에 20대 남자 중 29.5%가 20대 여자 중 23.6%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뇌졸중, 고혈압 등의 질병의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한 영양균형을 통하여 이를 예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식재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영양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보충하자는 뜻에서 ‘지산지소’라는 말이 탄생했다.

〈표 3〉 일본의 식생활 변화

	1960년	1980년	2004년
쌀	48.3%	30.1%	15.4%
축산물	3.7%	12.0%	15.4%
유지류	4.6%	12.5%	14.2%

이처럼 당초의 지산지소는 ① 전통적인 식생활 개선과 균형 잡힌 식생활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의료비삭감), ② 쌀 감산 정책의 일환으로 휴경된 농지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농산물로 전환하며(식량관리제도 유지), ③ 기후 변동에 약한 쌀농사 문화에서 재배 농산물의 다양화로 위험을 분산(농가수입 안정)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이유로 추진되었다.

특히 2000년 제20회 및 2003년 제23회 일본농협전국대회에서 '지산지소'가 강조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김영섭 & 손황제, 2009).

또 2000년에 들어와서 두 가지 사건이 지산지소의 확산에 기여했다. 첫째는 우유의 오염 문제였다. 한 식품회사의 우유에 포도구균이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사태의 진원지를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둘째는 광우병(BSE)이었다.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뒤 일본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이후 일본인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식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모르는 곳 보다는 가깝고,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생산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사건은 자연스럽게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의 증가로 이어졌고, 지산지소의 확산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는 지산지소도 출발 당초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전통식의 복권' 등으로 그 의미가 변경 또는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지역의 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상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 농도불이(農都不二; 도시와 농촌은 떨어질 수 없다), 순산순소(旬産

旬消: 제철음식을 먹자) 등의 개념도 생겨났다.

지산지소 운동은 현재 농림성을 중심으로 각 현(縣)별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성은 지산지소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4~5회 위원회를 열어 검토 자료를 발표하고 있고 지산지소 실천 우수 사례를 표창한다. 가가와(香川)현에서는 지산지소를 통한 식육교육을 하고 있다. 지산지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들도 여러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도 지산지소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법에 의거해서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기본계획에는 1)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2) 식료자급률 목표 3)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3월 발표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식육(食育)'과 '지산지소'를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1) 알기 쉽고 실천적인 식육(食育, 즉 식생활 교육을 말함. 농림성은 食農教育이라고 함)과 지산지소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2) 쌀을 비롯한 국산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촉진하며, 3) 국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에게는 1) 뛰어난 경영감각을 가진 후계자에 의해 수요에 맞는 생산을 추진하고,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대를 강화하며, 3) 후계자에게 농지를 집적(agglomeration)하고, 경종농업과 축산이 연대하여 사료작물의 생산 등을 통한 효율적인 농지이용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푸드마일리지(食里程)가 높은 주원인이 미국 등에서의 사료작물의 수입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만하다.

또 기본계획 중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중

에서 '생산자와 얼굴이 보이고 대화가 가능한 관계에서 지역의 농산물과 식품을 구입하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농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 한다'고 규정하고 지산지소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적 연계는 일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향상시킴으로써 일본농촌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06년 지산지소 운동의 경제적 효과는 총 2838억엔(약 4조 4,000 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2005년 6월 제정된 「식육기본법」은 먹거리는 국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식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삶의 기본이고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의 기초가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식품에 관한 지식과 식품을 선택하는 능력을 습득해서 건전한 식생활이 가능한 인간을 육성한다.'

2006년 3월 작성된 「식육기본계획」에서는 농림수산성이 식사 균형 가이드를 통한 일본형 식생활을 보급하고, 외식산업과 소매업에 모델 사업을 지원하고, 체험활동도 지원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시책으로 가정과 학교,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식생활 교육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촉진과 이를 통해 환경과 조화를 갖춘 농림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식육기본법」을 통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을 2004년 21%에서 2010년까지 30%까지 증가시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농업·농촌의 활성화까지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식육추진 기본계획」의 핵심사항인 식료의 자급률 목표 45%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을 지산지소의 실천과 식육이라고 보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이 나서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일례로 전통적으로 일본에는 가게 앞에 내걸어

영업 개시를 알리는 빨간 제등이 있다. 최근 일본의 음식점들이 이 제등 색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꾸고 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1600여 곳의 음식점이 초록 제등을 내걸었다. 초록 제등을 가장 먼저 내건 곳은 홋카이도 오타루의 작은 음식점이었다. 2005년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절반 이상을 지역 먹을거리로 쓰는 가게는 초록 제등을 내걸어 알리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초록 제등은 이제 일본 농림수산성이 후원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됐다. 또 초록 제등에도 차이가 있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식재료의 50% 이상이 음식점 인근에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불가피한 경우 일본 국내산)일 때, 음식점 주인은 별 하나가 그려진 초록 제등을 내걸 수 있으며, 지역 먹을거리 함량에 따라 별의 숫자가 두 개(60%), 세 개(70%), 네 개(80%), 다섯 개(90% 이상)까지 올라간다.

일본에서는 지산지소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책정하고 원활한 지산지소를 추진하기 위해 지산지소와 관련해서 2007년에는 약 900억 엔의 예산도 확보하였다. 예를 들면 농업, 급식, 상공, 관광 등이 일체가 되어 지역 전체가 지산지소에 참여하는 ‘지산지소 모델타운 사업(2억 6천만 엔)’을 공모해서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회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의 정비를 지원한다.

‘강한 농업 만들기 지원사업(345억 엔)’은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직매시설이나 처리가공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하고 지산지소 실천 산지 육성을 지원한다.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지원 교부금(340억 엔)’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에게 매력있는 교류거점이나 시민농원, 직매장, 식자재 제공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한다. 농업과 급식, 상공, 관광 등의 지산지소 관계자를 연결하는 지역 지도자를 육성하거나 지산지소의 사례 조사와 분석 등 지산지소 우수사례 표창 등을 실시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100% 농림성의 예산 지원으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표 4〉 2008년도 지산지소 관련 일본 중앙정부 예산 개요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지산지소 모델 타운 추진 사업 - 협의회, 선진사례 조사, 가공품 개발,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회 지원	14
지산지소 모델 타운 정비 사업 - 농축산물 가공처리 시설, 직판장, 교류 시설 등	266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지산지소 관련) -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 구축, 지역의 농업과 관련 산업 지원	500
지산지소 추진 활동 지원(민간사업) - 지산지소 추진 전문가 육성, 사례조사·분석 또는 우수 사례 표창 등	13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 수산물 가공 시설 및 도시 어촌교류를 위한 지역 수산물 판매·제공 시설의 정비 지원	8982 (일부분)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민간사업) - 식품 클러스터 형성으로 지역 식품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전략 식품 개발 유도	609
산림·임업·목재산업 만들기 교부금 - 특수 임산물 생산 기반 고도화, 품질 안정화, 판매 다양화 등을 위한 시설 정비 지원	11,681 (일부분)
저비용, 고품질 가공·업무용 농산물 공급 기술 개발 - 지역별 기후조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야채나 대두 품종 개발 등	485
식품유통 고부가가치 모델 추진 사업(민간사업) - 산지와 제휴한 소매업자 등의 지역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지원	33
도매시장 연계 물류 최적화 추진(민간사업)	55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 농산어촌 지역 거부, 도시와 지역간 교류 촉진 등	39,911 (일부분)
임산물 소비·유통 종합지원 대책(민간사업) - 버섯, 산채, 목탄 등 임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 통일 규격 제정·보급 등	80
식사의 안전·안심 확보 교부금 - 식사 밸런스 가이드 보급·활용 등 지역에서의 이벤트 개최 등을 지원	2,534 (일부분)
광역 연계 공생·교류 대책 교부금 - 도·도·부·현 간 광역 제휴 추진을 위한 교류 거점 정비, 도시·농촌간 만남의 장소 정비 등	973 (일부분)
일본형 식육 추진 사업 - 식육 관련 심포지엄 개최, 쌀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식생활」 보급·개발 추진·3,095	3,095

자료: 김영섭 & 손황재, 2009: 4.

지산지소는 신토불이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이나 파머스마켓의 성장을 통하여, 지산지소의 생활화가 상당부분 정착되었다.

5.2. 미국의 로컬푸드

거대한 패스트푸드 산업과 농기업(agribusiness)으로 상징되는 글로벌화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컬푸드는 '로컬한 식(食)과 농(農)'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영양 및 신선도를 극대화하려는 취지의 운동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로컬푸드는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규정된다(허남혁, 2006). 농업이 세계화, 표준화되면서 대부분의 먹거리가 글로벌푸드화되어 엄청난 규모의 자원낭비와 공해유발은 물론이고,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다량의 방부제를 첨가하여,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동안 온갖 종류의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는 영국의 환경운동가 팀 랭(Tim Lang)이 창안했다. 푸드마일리지란 식량수입에 따른 환경부하에 착안하여 식량의 수송량과 수송거리를 종합적·정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지표이다. 즉 식재료가 생산·운송·소비되는 과정에서 운반된 거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10톤의 식료를 100km거리에서 수송했을 경우 푸드마일리지는 $10t \times 100km = 1,000t \cdot km$ 이다. 푸드마일리지는 인간 활동의 모든 것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흔적을 뜻하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과 결합, 이동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식품과 농산물이 미국 안에서만 이동하는 거리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제외하고)만 해도 매년 평균 5,660억 톤마일(ton-mile)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식품의 전 지구적인 이동에 의존하는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평균 이동 거리는 10년 전에 비해 25%나 길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조차 해 보지 않는다(Goodall et al., 2006).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살리나스 벨리에서 키위 약 5,000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까지 대륙을 횡단해서 운송되는 상추는 목적지에 도착해 음식의 에너지로 제공하는 것보다 36배나 더 많은 화석 연료 에너지를 운송 과정에서 소비한다. 또한 영국에서 먹거리 운송은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월마트의 지역배송센터이다. 그 주변 지역에 유통되는 생산품들은 지역배송센터에서 모든 검사를 마쳐야만 월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네브래스카 주의 링컨 교외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링컨의 월마트에서 팔기를 원하면, 그 상추는 검사를 위해 먼저 노스플랫까지 300킬로미터를 운송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링컨으로 다시 운송되어야 한다(Halweil, 2006).

라틴 아메리카의 농민들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주식 작물 대신 먼 나라 수출용 베이비 브로콜리, 당근 등을 재배하게 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고통 받고 있다(Thrupp, 1995). 로컬푸드 운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형 슈퍼체인에 대항하여 나타난 지역 먹거리 먹기(eat here) 운동인 것이다.

〈표 5〉 로컬푸드의 의의

영역	효과
건강 및 보건의료	식원성 질병(비만, 아토피 등)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유지
환경	농촌환경과 도시환경의 개선 농업 생물다양성의 증진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지역사회 및 경제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농사체험-생태교육-학교급식-먹거리교육의 연계
사회복지	저소득층의 먹거리 보장과 소농 생계보장의 연계
문화	농산물-음식-요리의 지역성 / 전통문화 / 다문화성의 극대화

자료: 허남혁, 2006: 267.

전미 각 지역에서는 파머스마켓(농산물 직매소)과 공동체 지원농업¹⁾(CSA: Community Support Agriculture)라는 회원제 직매조직, 치즈 등 농가제조 가공식품의 증가와 품질의 향상,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산물 이용을 추진하는 ‘팜 투 스쿨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 지역 농산물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는 카페나 식당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운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野崎賢也, 2006).

〈표 6〉 공동체 지원농업의 유형

유형	내용
농민 주도형	농민이 공동체 지원농업의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으로 농민이 회원을 모집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이다. 그리하여 농민이 어느 작물을 경작하여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형태이다.
회원 주도형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지원농업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그들이 원하는 특별한 작물을 경작할 농민을 고용하는 형태이다. 회원들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이다.
농민들의 협동조합형	여러 가지 형태의 농민이 공동체 지원농업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농민들이 다양한 농산물을 회원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민-회원의 협동조합형	지역사회주민과 농민이 협력하여 공동체 지원농업 프로그램의 자원을 소유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자료: 박덕병, 2005: 143.

1) 그러나 공동체 지원농업의 모델의 기원은 스위스, 독일, 일본에 두고 있다(Groh & McFadder, 1997; Suput, 1992). Goodall et al.(2005)은 Community Sponsored Agriculture로 표기하고 있다.

공동체 지원농업은 대안적 농식품체계의 한 형태로서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지향 농업경영체의 한 가지 유형이다. 공동체 지원농업은 식품, 자연, 사회의 새로운 혼합을 만드는 것으로서 새로운 영농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Sharp et al., 2002),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미국 농무성(USDA)의 정책적 지원하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회제도이다. 특히 공동체 지원농업은 농촌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인 농업의 한 형태로서 농민과 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식품체계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지역사회 지원농업과 같은 영농의 방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박덕병, 2005).

지역 농산물 소비 운동을 ‘먹을거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이 운동이 내 고장에 대한 식품 공급의 통제권을 내 고장의 손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동체 지원농업(CSA: Community Sponsored Agriculture)이나 농산물 직판장 등을 통한 직거래는 곧 대형 할인마트나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나 마찬가지로(Goodall et al., 2005).

5.3.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슬로푸드(Slow Food)란 패스트푸드(Fast Food)의 반대를 말한다. 이 운동은 미각과 건강을 위해, 획일적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맛없고 동물의 사료와 같은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각자 식성에 따라 전통음식을 천천히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시작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초국적 자본에 의한 ‘강요된 세계화’가 진행되

고 있던 시점이었다(김철규, 2003: 218).

미국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가 이탈리아 로마에 진출하자, 1986년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브라(bra) 마을에서 현 회장인 카를로스와 그의 친구들 62명이 맛을 표준화하고 전통음식을 소멸시키는 패스트푸드의 진출에 대항하여, 식사·미각의 즐거움·전통음식 보존 등의 가치를 내걸고 슬로푸드의 모체인 Arcigola를 결성하여 이 운동을 시작했다. 1986년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브라(bra) 마을에서 시작된 운동은 현재 Bra에 운동본부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 독일,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회원 37,000명을 포함하여 48개국에 77,0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가진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동아일보, 2001.12.12).

슬로푸드 운동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음식문화를 만들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음식의 안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즐기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하고(safety) 우수한 품질(quality)을 지닌 다양한(diversity)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식품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러한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세계식품체계(global food system), 포드주의적 식품생산과 유통체계, 패스트푸드의 세계화에 대항하고자 한다(김홍주, 2004). 슬로푸드 운동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역 단위 식품생산과 선순환 유통체계, 그리고 자연 식재료를 이용하는 전통음식의 보존과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김종덕, 2002a).

그러나 슬로푸드 운동은 단순히 패스트푸드를 반대하는 것 이상이다. 슬로푸드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슬로라이프, 즉 '여유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덕, 2003). 그러므로 신토불이가 인간의 생존 원리 차원, 즉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개념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식생활 원리를 설명한 것인 반면, 슬로푸드는 음식의 형태나

조리 방법을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신토불이와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의 비교

이러한 대안적 농식품체계는 구체적 목적이나 출발배경, 추진체계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토불이와 지산지소, 로컬푸드는 공간성이 강한 반면, 슬로푸드는 바람직한 음식의 형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토불이, 지산지소, 로컬푸드는 공간적 개념을 강조하는 반면 슬로푸드는 시간적 개념을 강조한다. 출발목적과 의의에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현재의 추진체계와 형태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보면, 신토불이,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는 모두 식과 농의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에서 출발했고, 목표점과 그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다.

〈표 7〉 신토불이,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의 비교

명칭	신토불이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
발생지	한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발생년도	1989년	1981년 ²⁾	1990년대	1986년
목적 및 의의	인간의 생존원리 차원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인간의 바람직한 식생활 원리를 설명	식생활개선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를 통한 의료비 삭감, 식량관리제도 유지, 농가수입 안정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여 지역농업과 농촌경제를 유지	-인간이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좋다는 음식의 형태 내지는 조리법 권장 -전통음식의 이용과 보전
특징	-장소를 지칭 -공간성이 강함	-장소를 지칭 -공간성이 강함	-장소를 지칭 -공간성이 강함(가장 좁은 공간적 범위를 가짐)	-바람직한 음식의 형태 지칭 -다른 운동에 비하여 공간성보다 시간성이 강함

국산농산물 지향	국산농산물 사용 지향	지역농산물 사용 지향	국산농산물(특히 50km이내의 지역농산물) 사용 지향	굳이 국산농산물 사용을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전통농산물,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도록 유도
현황	초창기 42일 동안 1300만 명이 참여서명을 하여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정도였으나 이후 소강상태	최근에는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행위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활동과 지역농산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	회원제 직매조각, 파머스마켓, 공동체지원농업(CSA) 등의 형태로 전미 각 지역에서 성장세 유지	40여개국에 7만여명의 유희회원을 가진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체계화 미흡 -국민들의 인식·관심 약화 -도·농교류 중심으로 추진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와의 연계 미약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 등 외국의 대안적농식품체계와 동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산물만으로 모든 품목을 조달하기 곤란한 상황에 한계 -판매, 재무, 품질관리체계 등 경영관리 능력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수가 안전한 먹거리의 구매와 소비를 위한 단순 형태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수가 안전한 먹거리의 구매와 소비를 위한 단순형태로 참여

7. 결 론

한국에서 신도불이의 개념을 짧은 기간에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이해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생적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이를 실천으로 옮겨서 생활화하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농민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2) 개념은 1970년대에도 있었으나, 용어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었다(김영섭·손황제, 2009: 1).

대안적 농식품체계,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운동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했다. 어찌면 이것은 신토불이가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 한계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신토불이 운동을 한국적 대안적 농식품체계로써 재해석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자생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으로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사랑 운동은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기업에는 농촌 문제 동참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부터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고 일방적인 농촌 돕기 차원에서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공동 번영하기 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운동'으로 승화하여야 한다(민승규, 2006).

농협 등 농민단체와 경제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비롯한 '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에는 1만 1000여 개의 기업이나 단체가 1만여 개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그린투어리즘, 지역 농산물 구입, 농작업 체험,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계기로 도시의 소비자들이 향토의 전통음식을 구입하는 등 신토불이의 실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 이제까지 학교급식을 대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했으나 2006년 6월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된 이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부이지만 지역의 농협과 학교, 생산 농민이 안전하게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잠시 소강상태였던 신토불이의 실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이 증가하고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 나면서 국산농산물과 전통적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주5일제 근무와 소득의 증가는 문화·여가 공간과 녹지 공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부 각부처에서도 녹색관광(green tourism)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활용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신도불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도불이,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 등의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농산물 수출입으로 인한 강요적인 식생활문화의 획일성의 문제점을 표현한 것이고, 인류사적으로는 현재의 농산물 수입에 의한 과도한 음식료 소비문화의 문제점과 대량소비 체제에 대한 반대 심리를 운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도불이 운동은 농산물시장개방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관주도적 성격의 운동으로 전개된 반면, 자생적인 지지기반의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현재에는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로컬푸드, 지산지소, 슬로푸드가 신도불이와 동일시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추세는 신도불이 운동과 같은 대안적 농식품체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도불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사회적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의 신도불이를 두고 외국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다른 나라의 운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편리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와 다른 토양에서 출발한 운

동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의 신토불이 운동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식량안보, 농촌경제활성화, 환경운동의 측면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생적인 대안적 농식품체계로 되살릴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김영섭, & 손황재. (2009.01). 일본의 지산지소(地產地消) 현황과 시사점. *CEO Focus* 제220호.
- 김종덕. (2003).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서울: 한문화.
- 김종덕. (2004a). 패스트푸드의 세계화와 슬로우푸드 운동. *지역사회학*, 4(1), 1-20.
- 김종덕. (2004b). 농업의 세계화와 대안농업운동. *농촌사회*, 12(1), 133-159.
- 김철규. (2003).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변동.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홍주. (2004). 슬로우푸드 운동과 대안식품체제의 모색. *농촌사회*, 14(1), 85-118.
- 동아일보, (2001.12.12일자).
- 민승규. (2006.10). *농촌사랑운동발전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덕병. (2005). 미국의 Local Food System과 공동체 지원농업(CSA)의 현황과 전망. *농촌사회*, 15(1), 133-174.
- 엘리자베스 헨더슨(Elizabeth Henderson). 2006. *지역식품체계, 풀뿌리 수준부터 재건하기. 이윤에 굶주린 자들. 프레드 맥포드 외 엮음. 윤병선 외 2인 옮김.* 서울: 울력, 175-188.
- 이을호. (1993).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신토불이 이야기*. 서울: 지식산업사.
- 임형백, & 강동우. (2008).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평가*. 수원: 농촌진흥청.
- 임형백, & 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형백, & 조중구. (2004). 한국과 EU의 농촌개발의 비교. *농촌계획*, 10(2), 25-34.
- 주간조선. (2006.10.17일자).
-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 (2008). *슬로푸드, 맛있는 혁명*. 김종덕·황성원 옮김. 서울: 이후.
- 코노 다이스케. (2006).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브라이언 헬웨이(Brian Halweil). 로컬푸드 김종덕 외 2인 옮김.* 서울: 시울, 248-249.
- 허남혁. (2006). *로컬푸드의 등장 배경과 향후 제도화의 가능성. 브라이언 헬웨이(Brian Halweil). 로컬푸드 김종덕 외 2인 옮김.* 서울: 시울, 258-272.
- 나카다 데쓰야(中田哲也). (2007.09). *푸드마일리지*. 日本評論社.

- 노사키 겐야(野崎賢也). (2006.02). 사회운동화하는 미국의 로컬푸드운동. *現代農業* 2月 増刊호.
- B. S, Yoon. (2006.11). Who is Threatening Our Dinner Table?. *Monthly Review*, 58(6), 120-135.
- Friedland, W. H. (1984). Commodity system analysis: an approach to the sociology of agriculture. *Research in Rural Sociology and Development*, 1, 221-235.
- Friedland, W. H. (1991). *Toward a New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e*. Boulder: Westview Press.
- Friedmann, H. (1982). The political economy of food: the rise and fall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food ord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5) (supplement), 248-286.
- Goodall, J., McAvoy, G. & Hudson, G. (2005). *Harvest for Hope: A Guide to Mindful Eating*. New York; Warner Books, Inc.(김은영 옮김. 2006. *희망의 밥상*. 사이언스북스).
- Goodman, D., Sorj, B. & Wilkinson, J. (1987). *From Farming to Biotechnology: A Theory of Agro-Industrial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 Groh, T. & McFadden, S. (1997). *Farms of Tomorrow Revisited: Community Supported Farm, Farm Supported Communities*. Kimberton, PA: Biodynamic Farming and Gardening Association.
- Halweil, B. (2006). *Eat Here: Reclaiming Homegrown Pleasures In A Global Supermarket*. W W Norton & Co Inc.
-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IFG). (2002). *Alternative to Economic Globalization: A Better World Is Possible*(이주명 옮김. 2003.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서울: 필맥).
- Kautsky, K. [1899] 1988. *The Agrarian Question*. Winchester, MA: Zwan Publications.
- Lenin, V. I. [1899] 1967.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Moscow: Progress.
- Magdoff, F. & Foster, J. B (eds.). (2000). *Hungry for Profit*. New York University Press.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r*. London: Methuen.

- Montanari, M. (2001). La fame e l'abbondanza. Storia dell' alimentazione in Europa(주경철 역. 2001. 유럽의 음식문화. 서울: 새물결).
- Reardon, T., Cordon, Jean-Marie. & Busch, L. (1999). Global Change in Agrifood Grades and Standard: Agribusiness Strategic Reponses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Review*, 2(3/4), 421-435.
- Sanderson, S. E. (1986). The emergence of the 'world steer': internationalization and foreign domination in Latin American cattle production. in F. L. Tullis and W. L. Hollist (eds.), *Food, the Stat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harp, J., Imerman, E. & Peters, G. (2002).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building Community Among Farmers and Non-Farmers. *Journal of Extension*, 40(3). www.joe.org/joe/2002june/a3.html
- Suput, D. (1992).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in Massachusetts: State, benefits and barriers*. Unpublished Master Thesis, Tufts University.
- Swanson, L. E (ed.). (1988). *Agriculture and Community Change in the U.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Thrupp, L. A. (1995). *Bittersweet harvests for Global Supermarkets: Challenges in Latin America's Agricultural Export Boom*. Washington D.C.: World Resources Institute.

논문투고일: 2009. 2. 25

1차수정일: 2009. 3. 25

2차수정일: 2009. 5. 20

게재확정일: 2009. 5. 29